한국가정관리학회지 : 제 9 권 제 2 호 1991

도시주부의 스트레스와 가정관리 행동유형과의 관계

The Relationship of Urban Homemakers' Stress and Home Management Behavioral Patterns

전남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李 安 那

Dept. of Home Mangemen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nna Lee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부교수 : 申 澤 植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 : Hyo Shick Shin

광주대학교 문리대학 가정관리학과
전임강사 : 禹 希 娙

Dept. of Home Management
Kwang Ju University
Instructor : Hee Jung Woo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문제
3. 연구의 제한점
Ⅱ. 이론적 배경
1. 주부의 스트레스
1) 스트레스의 개념 및 구조적 배경
2) 스트레스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2. 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
1) 가정관리 행동의 개념 및 가정관리 행동유형
2) 가정관리 행동유형에 관한 선행연구
3. 주부의 스트레스와 가정관리 행동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1) 주부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2) 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 측정도구
3. 용어의 정의
4. 자료의 수집 및 분석
Ⅴ. 결과 및 해석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2. 주부의 스트레스
3. 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
4. 주부의 스트레스수준과 가정관리 행동유형과의 관계
5. 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에 각변인이 미치는 독립적 영향분석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homemakers' stress and their home management behavioral patterns in Money and Time focusing on the Morphogenic & the Morphostatic.

This reseach aimed to :

1) Identify the overall tendency of homemakers' stress & home management behaviral patterns.

2) Find out if socio-demographic variables(ie. age of homemakers, level of education, duration of marriage, number of children, homemaker's employment, socioeconomic statu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homemakers' stress and their home management behavioral patterns.

3) Identify the correlation between homemakers' stress and home management behavioral patterns.

4) Find out variables which have independently significant effect on home management behavioral patterns.

For these purpose, this reseach conducted a survey by using questionaire developed by former researchers.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500 homemakers living in Kwangju who have at least one child.

The data analyzed according to frequency, percentage, mean, one-way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

1) General tendency of the stress level percepted by the homemakers is relatively low.

2) Socio-demographic variable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stress of homemakers. Among them only homemaker's age, the number of children and socio-economic status have influed on the stress of urban homemakers.

In each area, there are differences among groups ; homemaker's age, durations of marriage, number of children in the area of family ; age, number of children, socio-economic status in the area of health ; age, durations of marriage, number of children, socio-economic status in the area of finance ; socio-economic status in the area of household work.

3) General tendency of homemaker's behavioral patterns is somewhat morphostatic.

4) Socio-demographic variable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behavioral patterns of home management.

a) Homemaker's age, the level of education, socio-economic status is a variable to have influences on home management behavioral patterns of the Money.

b) The age of homemakers is a variable to have influences on home management behavioral patterns of the time.

c) The age of homemakers, duration of marriage is a variable to have influences on the home management behavioral patterns of the resources.

5) There are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homemakers' stress and home management behavioral patterns. The higher level of stress, the more morphogenic home management behavioral patterns.

6) Influential variables related to management behavioral patterns are homemaker's age, the level of stress, socio-economic status.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가정은 가족 구성원들의 욕구충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가정관리 행동은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이다. 그러므로 가정관리 행동은 가족 구성원들의 가치나 목표, 그리고 기준에 근거해서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창조함으로써 가족 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목적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장명욱, 1986).

Nickell, Rice, Tucker(1976)에 의하면, 관리는 의도적으로 개발된 자원의 질과 량에 달려 있을 뿐만아니라 가족을 위하여 자원을 활용함에 있어서 관리과정은 어느정도 정확하고 수준높게 할 수 있는가에 좌우된다고 보았다.

어느사회를 막론하고 개개의 가족 구성원은 곧 그 사회를 이루며 이들의 정신 · 심리적, 신체적인 기본욕구의 충족은 사회발전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며 건전한 사회의 기틀을 제공해 준다. 따라서, 가족이 만족할 수 있는 가정관리행동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가정관리자의 능력여하에 따라 가족자원의 활용도가 달라지고 가정관리의 질이 좌우된다고 한다면 가정관리의 질적향상을 위해서는 보다 차원높은 가정관리 행동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가정관리 행동을 보다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가정관리 행동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즉, Buckly(1967)는 시스템이론(System theory)에 입각해서 환경의 변화에 대해 얼마나 개방적인가, 즉 변화에 대해 얼마나 수용적인가에 따라 행동유형을 안정지향형(Morphostatic)과 변화지향형(Morphogenic)으로 분류하였다.

이와같이 가정관리 행동유형은 가정과 환경과의 관계속에서 가정을 성장, 유지 시켜주는 거시적 차원의 문제이며 가정관리자가 어떤 유형의 관리행동을 지향하는가는 가정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지금까지 이뤄져온 주부들의 가정관리 행동에 대한 연구는 주로 관리행동에 대한 연구로서 가족시스템의 특성인 역동성을 간과하여 가정관리에 변화의 개념을 반영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가정관리 행동을 정태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또한 개별적인 과정에 촛점을 맞춤으로써 가정관리 행동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현대사회가 복잡해져 감에 따라 인간을 둘러싼 가족내의 환경의 변화는 인간에게 새로운 적응을 요구하고,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사건에서 발생되는 스트레스는 이제 생활에 불가피한 요소가 되었다. Hamilton(1979)은 가족은 생활하는 동안에 스트레스요인이라 볼 수 있는 생활사건 변화를 경험한다고 했다. 실제 사회제도와 가족내의 가치관은 아직도 상당부분이 전통적인 경향을 띄고 있어서 현대 기혼여성들은 과거의 주부의 역할과 현대에서 요구하는 주부의 역할을 모두 수행해야 하는 이중적 역할구조에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으며, 또한 복잡한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야기된 개개의 가족 구성원의 욕구 증대 및 다양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많은 신체적 ·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더구나 간과되어선 안될 중요한 점은 바로 가정관리자인 주부의 스트레스는 주부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행복과 사회적 안녕에 영향을 주는 상호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정관리자인 주부의 스트레스문제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정내에 잠재되어 겉으로 표면화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부의 스트레스는 크게 문제시되지 않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을 분석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밝히며, 점차 그 중요성과 관심이 증가되어 가고 있는 현대인의 스트레스구조중에서 가정생활에서 겪게되는 주부의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스트레스정도와 요인을 규명하며 이러한 스트레스가 가정관리 행동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주부들의 스트레스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구체적으로 시사되는 문제점들을 조기에 진단함으로써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가정관리 능력의 저하를 방지함과 동시에 가정관리 행동의 질적향상 및 가정생활의 행복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규명하려고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주부의 스트레스수준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하며, 이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도시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의 일반적경향은 어떠하며, 이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도시주부의 스트레스와 가정관리 행동유형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4) 도시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에 관련된 영향변인의 독립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이러한 연구문제들을 기초하여 구성한 연구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3. 연구의 제한점

1) 연구대상을 광주시에 거주하는 주부로 제한 표집하여 엄격한 의미의 임의표본추출이 되지 못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2)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것을 수정·보완한후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높이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측정도구의 정교성과 문항수의 제한등 신뢰도나 타당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3)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이거나 만성화된 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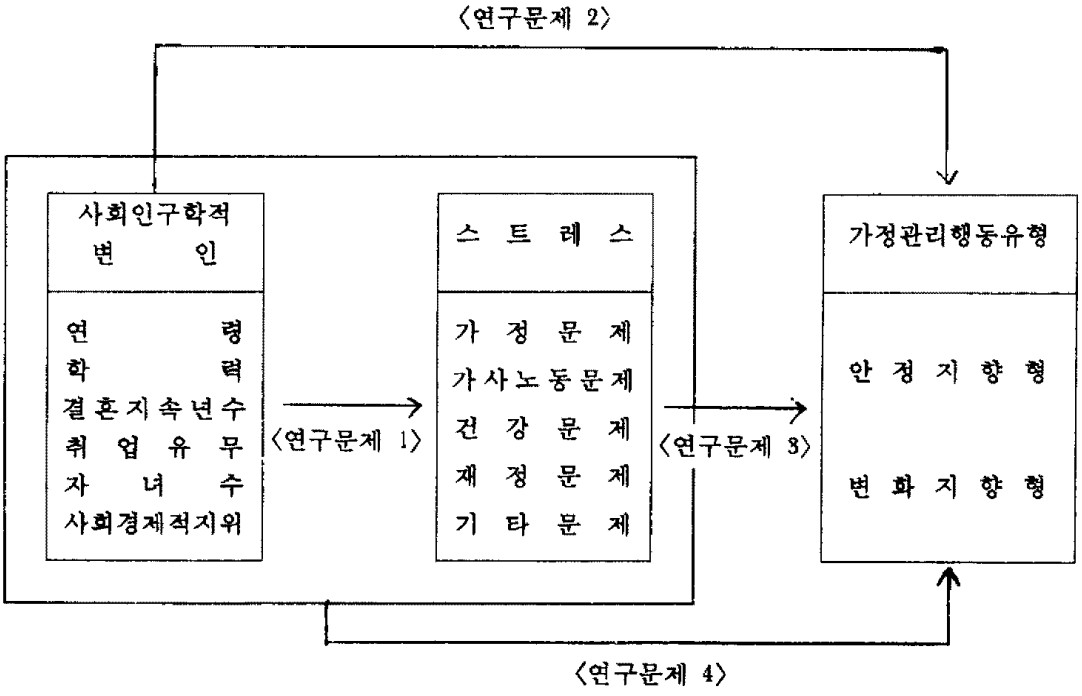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레스는 제외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주부의 스트레스

1) 스트레스의 개념 및 구조적 배경

Nelson & Nelson(1981 : 34)은 스트레스는 즉시 확인될 수 있는 심리적 상태로서 측정할 수 있으며, 어느사건은 거의 스트레스반응을 창출하는 반면 모든 신체적 스트레스반응은 동일하고 혈압상승, 맥박이 빨라지고 호르몬분비가 많아진다고 하였다.

McCubbin(1980 : 857)은 스트레스는 본래의 사건자체로서 볼 수 없고 오히려 스트레서(Stressor)가 아직 관리되지 않는것에 의하여 초래된 긴장의 나머지로써 고려된다고 하였다. Dohrenwend(1973 : 168)는 스트레스적인 사건을 개인의 일상적인 활동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객관적인 사건으로 보았다.

Hans Selye는 모든 긍정적 또는 부정적 사건들은 스트레스를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이때 발생하는 긍정적 스트레스는 'Eustress', 부정적 스트레스는 'Distress'라고 명명하였다(Veit & Werc, 1983 ; 권경희, 1985에서 재인용). 이와같이 스트레스란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나 본 연구에서는 불안 · 두려움 · 부담감 · 괴로움 · 정서적 긴장 적응의 어려움등을 상징하는 용어로서 Distress에 한정한다.

최근 발표된 연구(Gove & Tudor, 1973 ; Radloff, 1975 ; Bernard, 1982)들에 의하면, 기혼여성들의 정신건강상태가 미혼남녀나 혹은 기혼남성들에 비해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주부는 가정내의 중추적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이중적인 역할수행으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내적인 상황과 더불어 예기치 못했던 생활사건을 경험하므로써 주부는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며 스트레스사건은 가족곤경(커뮤니케이션단절, 수입의 감소등)과 관련되며 가족 취약성(가족자원의 감소, 부재 또는 마비등), 가족위기에 영향을 준다.

2) 스트레스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는 도시주부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스트레스및 긴장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서 가정적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심인숙(1981 : 3)은 여성의 정신장애의 유발요인을 배우자문제, 가정문제, 건강문제등으로 나누었다. 도시화와 산업화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가족의 구성형태상 부부중심의 핵가족으로 되어갈 뿐만아니라 가족구조의 내적인면, 즉 부부간의 인간관계와 가사분담 등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는데, 한남제의 연구(1971 : 111)에 의하면 여성의 불만은 남편의 과음, 경제적곤란, 성격의 부조화, 시댁문제, 남편의 협력심부족 순으로 부부갈등요인을 설명하였으며, 유도진(1978 : 101)은 혼전이나 혼후의 부정, 성격차이, 남편의 폭력, 경제파탄, 학대, 성적불만, 과음등이 갈등의 원인이라 하였다.

한편, 장병옥(1985 : 35-41)은 주부의 스트레스요인을 가정문제, 가사노동문제, 건강문제, 재정문제, 기타문제로 나눠 설명했고, 이광주(1988 : 21-22)는 자녀양육태도, 남편의 음주 및 늦은 귀가시간 남편의 퇴직 및 질병, 남편의 직업전환 및 사업실패, 인간관계의 불화, 경제적곤란, 배우자의 사고나 중병 및 실직, 부부간의 성생활로 분류하였고, 김경아와 이정우(1990 : 109-113)는 가정생활상 스트레스수준을 주부역할문제, 가정경제문제, 가족관계문제, 가사노동문제, 건강문제로 나누어 보았다. Orden과 Bradburn(1969 : 392)은 여성이 재정적 압박에 의하여 취업하게 되면 긴장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설명한 문제의 영역에서 현실적인 성취사이의 불일치가 불만과 긴장 및 스트레스를 유발시킨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부의 스트레스요인을 가정문제, 건강문제, 가사노동문제, 재정문제, 기타문제, 즉 5개의 영역으로 나눠살펴 보기로 한다.

2. 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

1)가정관리 행동개념 및 가정관리 행동유형

가정관리 행동은 가족체계 뿐만아니라 환경과의

관계에서 역동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가족체계는 목표달성을 위해 부분들을 조화시킨 집합이라 할 수 있고 (장명욱, 1986), 가족체계속에 가족의 새로운 욕구가 받아 들여지는 정도에 따라 자원의 이용도가 결정된다(Beard & Firebaugh, 1978). 일반적으로 가정관리 행동이란 가족의 목표성취를 위한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창조를 통하여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목적적 행동으로 정의된다.

최근에들어 체계적 접근하에 관리행동을 유형화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Beard & Firebaugh, 1978 ; 조영희, 1986 ; 이정우 · 오경희, 1988 ; 김혜연 · 문숙재, 1987 ; 조혜정, 1990). 관리행동의 유형화시도는 관리체계를 환경과 관리행동을 결합시키는 하나의 중재과정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며, 환경변화에 대해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두가지 행동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진다.

Buckley(1967 : Beard & Firebaugh 1978에서 재인용)는 체계 이론에 입각해서 환경의 변화에 대해 얼마나 개방적인가 또는 수용적인가에 따라 안정지향형과 변화지향형으로 가정관리 행동유형을 분류했다. 가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환경과의 상호관계성을 강조함으로써 가정관리 행동의 개념이 보다 체계화되고 명료화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할때 Buckley의 행동유형은 가정관리 행동유형의 파악에 유용한 도구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Buckley의 가정관리 행동유형의 분류로서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가정관리에서 안정지향형과 변화지향형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2) 가정관리 행동유형에 관한 선행연구

최근의 가정관리 행동유형에 관한 몇몇 연구로는 가정관리 행동유형의 측정도구 개발을 시도한 Beard와 Firebaugh의 연구(1978)가 있으며, 이 선행연구를 토대로 조영희(1986)는 관리행동을 시간, 금전, 자원관리로 구분하여 주부의 자아실현도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대체로 안정지향적인 유형을 나타내었고 자아실현도와는 독립적인 영향이 없었다.

또 다른 연구로 이정우와 오경희(1988)는 가정경영에 대한 가치관과 관리행동 유형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가치관이 근대적일수록 변화지향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정관리 행동유형과 관련변인간의 관계를 연구(1988)하였는데 관리행동은 대체적으로 안정지향적이었다.

조혜정(1990)은 가정관리 행동과 가정관리 정보요구도 및 정보노출도와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서 금전관리, 시간관리, 자원관리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약간 안정지향적으로 나타났다.

3. 주부의 스트레스와 가정관리 행동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주부의 스트레스와 가정관리 행동유형과의 상관에 관한 선행연구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표 1. 안정지향적 및 변화지향적 행동유형의 특성

행동유형 / 차 원	안정지향형	변화지향형
1. 표준설정 및 행동순서 (Standard Setting and Sequencing)	엄격하다	융통적이다
2. 현 가족체계유지와 관련정도 Commitment to current system structure)	높 다	낮 다
3. 가정영역 유지 (Boundary maintenance)	엄격하다	상대적으로 경계가 개방적이다
4. 새로운 요구에 대한 적응정도 (Adjustment to new demands)	낮 다	높 다

자료 Beard & Firebaugh, 1978

설정한 영향변인에 따라 스트레스와 가정관리 행동유형 각각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 보기로 한다.

1) 주부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① 연령 : 김윤주(1977 : 26), 최태진(1980 : 8), 심인숙(1981 : 16), Jalowic 와 Powers(1981 : 10), 윤진(1984 : 77), 이광주(1988 : 24), 김경아·이정우(1990 : 109)는 연구결과 연령에 따른 스트레스수준이 매우 유의하다고 보고하였다. 김경아와 이정우(1990)의 연구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생활상의 변화나 문제가 질적, 양적으로 증가되어 관리의 양이 많아짐으로써 결국 이에따른 긴장이나 책임에 대한 부담감도 늘어난데 기인한 결과라고 보았다.

② 학력 : Gore와 Mangione(1983), 장병옥(1985), 김경아와 이정우(1990)의 연구에 의하면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정관리시 자원의 활용과 스트레스원인 파악의 능력이 풍부해져 인지하는 스트레스량과 심리적 손상은 적어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학력과 스트레스수준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는 연구로서 김윤주(1977), Jalowice & Powers(1981), 정민자(1983), 이광주(1988)의 연구들이 있다.

③ 결혼지속년수 : 장병옥(1985 : 38), 권경희(1985), 이광주(1988 : 26)는 결혼지속년수에 있어서 스트레스수준이 집단간에 차이가 유의했다고 보고하였다. 즉, 결혼지속년수가 길수록 건강문제 영역에서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다고 했으며(권경희, 1985), 결혼지속년수가 길수록 자녀교육, 가사노동관리 및 의사결정권의 변화, 중년기의 심리적·신체적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의 결과로 결혼생활에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하였다(장병옥, 1985).

④ 직업유무 : Booth(1977 : 645), 김경아와 이정우(1990 : 111)의 연구에서는 취업주부가 비취업주부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Bernard(1976 : 7)는 어린자녀가 있으며 보수가 적은 취업주부가 가장 스트레스수준이 높다고 하였다.

⑤ 자녀수 : 자녀수에 따른 스트레스량에 대해서는 대부분 자녀수가 많을수록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늘어나고 양육과정시 시간의 결핍과 활동의 제약이 야기되므로 스트레스량도 증가된다고 하였다(Nye & Carlson, 1970 : 224 ; 이광주 1988 : 27 ; 김경아·이정우, 1990 : 111).

⑥ 사회경제적 지위 : Dohrenwend(1973 : 174), Bernard(1976 : 7), 김영규(1980 : 25), 이광주(1988 : 27)의 연구들에 의하면 스트레스수준과 사회계층간에 반비례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김경아와 이정우(1990 : 111)는 자신이 지각한 사회경제적 지위와 스트레스수준을 연구한 결과 하류층이 더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① 연령 : 조영희(1986 : 36－50)는 연령은 금전관리 행동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아니며, 시간관리 및 자원관리 행동유형에 영향변인이라고 하였으며, 이정우와 오경희(1988 : 140)에 의하면 35세이하의 주부가 46세 이상의 주부보다 더욱 안정지향형을 나타내었고, 연령층이 낮을수록 애정에 대한 관리행동은 더욱 안정지향적이었다.

② 학력 : 조영희(1986 : 47)는 주부의 자원관리 행동유형은 대졸집단이 중·고졸집단보다 변화지향적임을 밝혔고, 상정기의 연구(1976)에서도 시간과 금전에 대한 관리를 하는데 학력이 주요한 영향요인이었다.

③ 결혼지속년수 : 조영희(1986 : 47)는 결혼지속년 수가 16～20년인 주부가 11～15년인 주부보다 자원관리 행동유형이 변화지향적이라고 밝혔고, 이정우와 오경희(1988)는 결혼지속년수가 짧을수록 지식 및 기능에 대한 관리 행동유형은 더욱 변화지향적인 반면에 결혼지속년수가 길수록 시간에 대한 관리 행동유형이 더욱 변화지향적이었다.

④ 직업유무 : 조영희(1986 : 47)는 취업주부가 비취업주부보다 시간 및 자원관리 행동유형이 변화지향적임을 밝혔고, 조혜정(1990)은 취업주부가 시간관리 행동과 자원관리 행동에서 비취업주부보다 변화지향적임을 제시하였다.

⑤ 자녀수 : 가정관리 행동유형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에서(이정우·오경희, 1988 : 142) 자녀

가 없는 가정의 주부가 자녀를 1명이상둔 가정의 주부보다 더욱 안정지향적인 관리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혜정(1990)은 자녀수가 가장 적은 1명의 경우가 가장 변화지향적이라고 하였다.

⑥ 사회경제적 지위 : 이정우와 오경희(1988)는 가정경영에 대한 가치관이 가정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류층으로 갈수록 시간관리 행동이 더욱 변화지향적임을 제시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자녀를 1명이상을 둔 광주시내에 거주하는 주부이다. 연구대상의 표집은 광주시의 사회경제적 차이, 연령의 분포를 고려하여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배부하였다.

2. 측정도구

1) 스트레스수준의 척도 : Holmes와 Rahe가 고안한 SRRS(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를 고성회, 최태진등이 한국문화의 실정에 맞도록 수정·보완한 척도에 기초한 장병옥(1985)의 질문지 문항과 McCubbin(1981)의 FILE(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를 수정·보완하여 질문내용을 작성하였다. 예비조사를 거쳐 스트레스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영역으로서 가정문제의 영역 8문항, 건강문제의 영역 7문항, 재정문제으 영역 7문항, 가사노동문제의 영역 6문항, 기타(사회적, 주거지) 문제의 영역 5문항으로 총 33문항을 작성하였다. 각 문항은 관련된 경험이 없다에 0점, 매우 심각하다에 4점을 주어 5점 리커트형 척도로 구성하였다. 신뢰도는 Cronbach의 α가 .84로 높게 나타났다.

2) 가정관리 행동유형의 척도 : 도시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조영희, 1986)에서 사용한 질문지문항을 수정하여 작성하였다. 예비조사를 거쳐 본 조사후에 문항양호도 및 신뢰도가 낮은 문항을 삭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시에 사용된 가정관리 행동유형의 문항은 다음과 같다*.

각 문항은 안정지향적 행동유형을 나타내는 문항의 경우 '정말 그렇다'의 1점에서 '절대 그렇지 않다'의 5점으로 하였고, 변화지향적 행동유형을 나타내는 문항의 경우에 '정말 그렇다'의 5점에서 '절대 그렇지 않다'의 1점으로 하였다. 즉, 1점에서 가까울수록 안정지향적이며 5점에 가까울수록 변화지향형에 가깝다. 이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의 α가 .62였다.

3. 용어의 정의

1) 스트레스(Stress) : 인간이 정서적으로 일상의 평형상태를 벗어나서 압박이나 불편 또는 손상을 받게되는 상태를 말하며 긴장을 일으키는 역동적인 힘으로써 이것은 각 개인이 최근 1년동안에 일상생활에서 변화·변경을 경험할때 스트레스를 느낀 사건의 심각도로 측정한다.

2) 디스트레스(Distress) : 문제거리나 근심을 겪었을때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이나 긴장 또는

*註) 조영희(1986)는 가정관리 행동유형 척도의 문항을 구성하는데 Beard(1975)의 연구를 참고로 하였다. Beard는 가정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주부의 계획수립행동에 대한 안정지향적(Morphostatic), 변화지향적(Morphogenic)행동 유형의척도개발에 연구촛점을 두었다. 연구목적을 위해 각 유형에 대한 43문항, 총 86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8개요인을 발견하였다. ① 금전에 관련된 안정지향적인 계획수립행동 ② 금전에 관련된 변화지향적인 계획 수립행동 ③ 요구에 대처하는 가족행동 ④ 지역사회에의 관여 ⑤ 개인적인 계획행동에 있어서의 융통성 ⑥ 자원의 극대화 행동 ⑦ 가족들의 규칙준수 ⑧ 개인적인 융통성 등이다. 이 요인들 중 1, 2, 5, 6, 8 만이 의미있게 나타났다. 그래서, 조영희는 안정지향적, 변화지향적 행동유형을 나타내는 두 문항씩 작성하여 금전관리 영역 20문항, 시간관리 영역 18문항*으로, 자원관리영역, 즉 가정관리 행동유형 척도 3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분석을 위한 가정관리 행동 유형문항을 재구성했다. 자료수집후 직교회전 방식 요인분석을 하였다. 금전관리 영역을 요인부가치가 .15이상인 10문항으로, 시간관리영역은 요인부가치가 .20이상인 13문항으로 재구성했다. 재구성된 척도의 신뢰도는 .69였다.

고통스런 상태이다.

3) 자원관리 영역 : 가정관리란 가족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그 목적이있다. 본 연구는 금전자원과 시간자원에 촛점을 두고 각 자원의 관리영역을 금전관리영역, 시간관리영역, 그리고 금전 및 시간관리영역을 합친 자원관리영역으로 구분한다.

4) 사회인구학적 변인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을 설명하는 기본적 사항으로 주부의 연령과 학력, 결혼지속년수, 자녀수, 취업유무, 사회경제적 지위를 변인으로 채택하였다. 여기서 사회경제적 지위는 연구대상자의 학력과 남편의 학력, 가족의 월수입, 남편의 직업으로 산출하였다.

4.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를 위하여 11월 1일~11월 10일에 걸쳐 예비조사를 하였으며, 본 조사는 11월 25일~12월 10일에 걸쳐 학생들을 통해 700명의 주부들에게 질문지를 배부한후 이틀이내에 회수하도록 하였다. 총 700부를 배부하여 수집된 자료 520부중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통계처리 및 자료분석에 가능한 500부만을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 program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백분율, 빈도분포를 적용하였고, 스트레스와 가정관리 행동유형의 일반적경향의 제시는 백분율, 빈도분포, 평균, 표준편차를 사용하였으며 제 변인간의 관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N=500)

집단 / 사회인구학적 변인	구 분	빈 도	백분율(%)
연 령	20대 (30세 이하)	29	5.8
	30대 (31-40)	210	42.0
	40대 (41-50)	223	44.6
	50대 이상(51세 이상)	38	7.6
학 력	국 졸	59	11.8
	중 졸	151	30.2
	고 졸	237	47.4
	대졸이상	53	10.6
결혼지속년수	5년 이하	20	4.0
	6-10년	53	10.6
	11-15년	145	29.0
	16-20년	186	37.2
	21-25년	72	14.4
	26년 이상	24	4.8
취업유무	유	160	32.0
	무	340	68.0
자 녀 수	1명	20	4.0
	2명	145	29.0
	3명	198	39.6
	4명	99	19.8
	5명이상	38	7.6
사회경제적 지위	상	143	28.6
	중	212	42.4
	하	145	29.0

계분석은 pearson적률상관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성격과 제 변인과의 관계는 one-way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하였고 채택된 주요변인이 가정관리 행동유형에 미치는 독립적영향을 보기위해 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Ⅳ. 결과 및 해석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은〈표2〉와 같다. 주부의 연령중 40대와 30대가 각각 44.6%, 42.0%로 전체의 86.6%를 차지하고 있다. 주부의 학력은 고졸이 47.4%로 가장 많으며, 결혼지속년수는 11~20년이 66.2%로 많았다. 취업유무는 직업이 없는 주부가 68.0%였고, 자녀수는 2~3명인 경우가 전체의 68.6%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경제적지위는 중류층이 42.4%로 나타났다.

2. 주부의 스트레스

1) 주부의 스트레스의 일반적 경향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본 연구대상자들의 스트레스수준의 일반적경향은 표 3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전체 스트레스수준의 평균은 49.17점(100점 환산시 37.25)으로 나타나 심각한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으며, 최저 16점에서 최고 99점까지 고른분포를 보였다. 각 하위영역별로 보면, 가정문제 및 가사노동문제, 건강문제 및 재정문제순으로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사회화와 기계화에 따른 가사노동의 간소화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자체에 대한 본질적특성은 과거에비해 크게 변화되지 못하고 있어서 여전히 주부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중대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2)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스트레스

〈연구문제 1〉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주부의 스트레스의 차이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과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표 4).

표 3. 스트레스 수준의 일반적 경향 (N=500)

스트레스 수준	N	%
상집단 (56점 이상)	165	33.0
중집단 (42-55점)	171	34.2
하집단 (41점 이하)	164	32.8

하위변인	가정문제	건강문제	재정문제	가사노동문제	기타문제	전체(계)
평 균	11.74	9.37	9.26	11.69	7.11	49.17
표준편차	5.17	5.19	4.35	4.05	3.26	16.48

① 연령 : 연령에 따른 주부의 스트레스수준은 가사노동문제와 기타문제를 제외한 모든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전체적인 스트레스수준도 $p<.05$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30대주부보다 20대주부가 스트레스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아마도 경험부족에 따른 가정운영의 미숙과 결혼 및 출산같은 환경의 전환이 이뤄져 재적응의 어려움을 겪기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② 학력 : 학력에 따른 스트레스수준은 각 영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이 개인에게 문제해결능력이나 인지능력과 관계가 있다고(McCubbin, 1983) 할지라도 주부의 스트레스는 비슷하게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③ 결혼지속년수 : 결혼지속년수와 스트레스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하위영역별로 유의한 수준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었다. 가정문제($p<.01$)와 재정문제($p<.05$)영역에서 결혼지속년수가 길수록 스트레스수준이 높아지다가 26년이상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정충량과 이효재(1970, 247), 장병옥(1985, 38), 권경희(1985)의 연구결과와 일치된 것이다. 결혼지속년수가 26년이상인 주부가 가정문제 및 재정문제의 스트레스가 감소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적 안정과 소득축적에서 오는 정신적여유와 윤택한 생활이 심리적 스트레스수준을 다소 감소시켰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경제적조건은 심리적 복지에 중요한 요인이 됨을 시사하고 있다.

④ 취업유무 : 취업유무에 따른 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취업주부가 비취업

표 4. 사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

변인	구분	N	가정문제		건강문제		재정문제		가사노동문제		기타문제		전체	
			M	D	M	D	M	D	M	D	M	D	M	D
연령	20대	29	8.90	B	7.14	C	6.97	B	12.00		7.07		42.07	B
	30대	210	11.45	A	8.82	BC	9.27	A	11.61		7.24		48.39	A
	40대	223	12.29	A	9.87	BC	9.32	A	11.81		7.04		50.32	A
	50대	38	12.34	A	11.26	A	10.63	A	11.80		6.79		52.21	A
	F값		4.45**		5.49**		4.37**		0.37		0.27		2.29*	
학력	국졸	59	12.00		10.29		10.25	A	11.63	BA	7.00		51.17	
	중졸	237	11.72		9.59		9.03	B	11.11	B	7.52		48.94	
	고졸	151	11.61		9.03		9.25	BA	11.81	BA	6.68		48.57	
	대졸	53	12.11		9.36		8.89	B	11.81	A	7.15		50.32	
	F값		0.21		1.12		1.44		2.58		1.30		0.52	
결혼지속연수	5년이하	20	9.70	C	8.20		7.65	B	13.00	A	7.10		45.65	
	6~10년	53	10.28	BC	8.53		8.02	BA	11.57	BA	6.45		44.85	
	11~15년	145	11.05	BAC	8.81		9.08	BA	11.46	BA	7.39		47.79	
	16~20년	186	12.53	BA	9.63		9.74	A	11.96	BA	7.01		50.87	
	21~25년	72	12.72	A	10.51		9.68	A	11.42	BA	7.33		51.67	
	26년이상	24	11.83	BAC	10.21		9.54	BA	10.92	B	6.92		49.42	
	F값		3.61**		1.93		2.28**		0.98		0.77		1.96*	
취업유무	유	160	11.61		9.49		9.35		11.80		6.84		49.09	
	무	340	11.80		9.32		9.22		11.63		7.24		49.21	
	F값		0.16		0.13		0.11		0.20		1.62		0.01	
자녀수	1명	20	8.65	B	6.75	D	6.05	B	12.40		6.40		40.25	B
	2명	145	11.39	A	8.51	DC	8.91	A	11.41		7.08		47.30	A
	3명	195	11.81	A	9.16	BC	9.56	A	11.94		7.28		49.70	A
	4명	99	12.61	A	10.79	BA	9.56	A	11.68		6.81		51.44	A
	5명이상	38	12.11	A	11.50	A	9.97	A	11.03		7.76		52.49	A
	F값		2.90*		5.45***		3.93**		0.81		0.90		2.99*	
사회경제적지위	상	143	12.06		8.82	B	8.95	B	12.57	A	7.18		49.58	BA
	중	261	11.33		9.21	B	9.04	B	11.21	B	6.89		47.67	B
	하	96	12.41		10.66	A	10.32	A	11.66	BA	7.60		52.65	A
	F값		2.04		4.32*		3.92*		5.50**		1.76		3.47*	

D=Duncan's Multiple Test P<.05* P<.01** P<.001***

주부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량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장병옥(1985 : 37), 김경아와 이정우(1990 : 111)의 연구결과와 같이 취업유무가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생각되었으나 본 연구결과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이점에 심층된 연구가 필요하겠다.

⑤ 자녀수 : 자녀수에 따른 스트레스수준은 유의한 수준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었다($p<.05$). 가정문제($p<.05$)와 재정문제($p<.01$)영역에서 자녀가 2명이상인 주부가 1명인 주부보다도 스트레스수준이 높았다. 즉, 자녀양육은 심리적인 부담감과 재정적 뒤받침, 시간의 결핍, 활동의 제약등의 문제를 경험하므로 자녀수의 증가는 곧 스트레스를 심화시키는 변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⑥ 사회경제적 지위 :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스트레스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류층, 상류층, 중류층순으로 스트레스수준이 높았다. 가사노동문제에서 상류

표 5. 가정관리 행동 유형의 일반적인 경향

가정관리행동 유형 집단	금전관리행동 유형			시간관리행동 유형			자원관리행동 유형		
	점수	N	%	점수	N	%	점수	N	%
안 정 지 향 형	9~18	87	17.4	11~22	73	14.6	20~40	42	8.4
약 간 안 정 지 향 형	19~27	367	73.4	23~33	351	70.2	41~60	411	82.2
약 간 변 화 지 향 형	28~36	45	9.0	34~44	76	15.2	61~80	47	9.4
변 화 지 향 형	37~45	1	0.2	45~55	.	.	81~100	.	.
평 균	22.21			28.00			50.21		
표준편차	3.94			5.32			7.49		

층이 중류층보다도 스트레스수준이 높았다($p<.01$). 즉, 학력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고(김미숙, 1979), 가사노동의 기술환경적인 조건에 따라 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만족도가 차이가 없었음을 보고한 연구결과(Ann Oakley, 1976 ; 서창원, 1983)로서 지지된다.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주부의 연령, 자녀수, 사회경제적 지위가 주부의 스트레스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3. 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

1) 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의 일반적 경향

〈연구문제2〉 와 관련하여 연구대상자의 가정관리 행동유형의 일반적 경향은 표 5와 같다. 금전관리 행동유형은 평균점수가 22.21로서 19~27구간인 약간안정지향적인 경향으로 나타났다. 시간관리 행동유형은 평균점수 28.00으로 약간안정지향적으로 나타났다. 자원관리 행동유형은 평균점수 50.21로서 가정관리 행동유형의 일반적 경향은 약간안정지향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영희(1986), 조혜정(1990)의 연구결과와 일치되게 나타났다.

2) 사회인구학적변인에 따른 가정관리 행동유형

〈연구문제 2〉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의 차이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과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표 6).

① 연령 : 주부의 연령에 따라 가정관리 행동유형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즉, 약간안정지향적으로 나타났다. 시간관리에 대한 행동유형이 20대가 30대보다 상대적으로 변화지향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대의 경우 가정관리에 대한 경험이 적어 패턴화된 행동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자녀의 출산 및 양육으로 많은 시간이 요구됨에 따라 그에 대처하기위해 시간사용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는데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조영희(1986), 이정우와 오경희(1988)의 연구결과와 일치된 것이다.

② 학력 : 학력에 따른 금전관리 행동유형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대졸이상인 주부가 고졸이하인 주부보다 상대적으로 변화지향적임이 나타났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창의력이 우수하여(Deacon & Firebaugh, 1975) 대안 모색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가계소득이 높으므로 금전관리에 있어서 보다 융통성을 갖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③ 결혼지속년수 : 결혼지속년수에 따른 자원관리 행동유형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대체적으로 약간안정지향적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집단간 차이를 보면 6~10년, 11~15년인 주부보다 21~25년인 주부가더욱 변회지향적인 행동유형을 보였다. 이는 자녀가 대학에 다니거나 취업을 하여 주부가 가정관리를 하는데 융통성이 증가되는 시기라는데 기인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④ 취업유무 : 취업유무에 따른 가정관리 행동유형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주부의 취업으로 인한 소득이 소득계층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미약하리라고 볼때 가정관리 행동유형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칠정도로 자원의 양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⑤ 자녀수 : 자녀수에 따른 가정관리 행동유형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정관리행동 유형 (N=500)

변인	구분	N	금전관리행동유형		시간관리행동유형		자원관리행동유형	
			M	D	M	D	M	D
연령	20대	29	21.97		28.76		50.72	
	30대	210	21.56		27.16		48.72	
	40대	223	22.87		27.57		51.45	
	50대	38	22.11		28.71		50.82	
	F값		4.48**		3.37*		5.54**	
학력	국졸	59	21.19	B	28.14		49.32	B
	중졸	237	22.15	B	28.23		49.91	BA
	고졸	151	22.21	B	27.70		50.38	BA
	대졸	53	24.55	A	28.57		52.11	A
	F값		3.72*		0.62		1.77	
결혼 지속 년수	5년이하	20	22.90		29.05	BA	51.95	BA
	6~10년	53	21.39		27.45	B	48.85	B
	11~15년	145	21.95		27.34	B	49.28	B
	16~20년	186	22.39		28.02	B	50.41	BA
	21~25년	72	22.43		28.61	BA	51.94	A
	26년이상	24	23.00		30.42	A	51.94	BA
	F값		1.13		2.11		2.36*	
취업 유무	유	160	22.05		27.71		29.76	
	무	340	22.29		28.14		50.43	
	F값		0.44		0.78		0.96	
자녀수	1명	20	23.30	A	28.50		51.80	
	2명	145	22.21	BA	27.81		50.01	
	3명	198	22.26	BA	27.55		49.80	
	4명	99	22.24	BA	28.88		51.12	
	5명이상	38	21.34	B	28.58		49.92	
	F값		0.94		1.38		0.88	
사회 경제적 지위	상	143	23.13	A	28.00		51.13	
	중	261	21.88	B	27.88		89.76	
	하	96	21.76	B	28.33		50.09	
	F값		5.98**		0.28		1.75	

D=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5^{*}$ $p<.01^{**}$

표 7. 스트레스와 가정관리행동 유형간의 상관관계

가정관리행동유형 / 스트레스하위영역	금전관리행동유형	시간관리행동유형	자원관리행동유형
가정문제	.03	.18***	.14**
건강문제	.02	.09*	.07
재정문제	−.01	.10*	.07
가사노동문제	−.02	.18***	.06
기타문제	−.04	.08	.04
전체스트레스	.01	.15***	.11*

$p<.05^{*}$ $p<.01^{**}$ $p<.001^{***}$

⑥ 사회경제적 지위 :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금전관리 행동유형은 약간안정지향적이며 상류층 주부가 중류층이하보다도 상대적으로 변화지향적이었다($p<.01$). 이것은 자원이 많을수록 금전관리를 하는데 융통성을 가질 수 있기때문 일 것이다. 이 결과는 조영희(198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4. 주부의 스트레스수준과 가장관리 행동유형과의 관계

〈연구문제 3〉인 주부의 스트레스수준과 가정관리 행동유형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7 과 같다.

주부의 스트레스수준과 가정관리 행동유형과는 전반적으로 미약한 수준의 상관을 나타내었다($r=.11$, $p<.05$). 스트레스수준이 낮을수록 자원관리 행동유형과($r=.11$, $p<.05$) 시간관리 행동유형은 ($r=.15$, $p<.001$) 안정지향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정우와 오경희의 가정관리 행동유형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1988 : 145)결과로 지지되는바 스트레스수준이 낮고 가정생활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주부일수록 목표지향적이고 주변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서서히 적응해 나가는 경향이다. 즉, 원만한 가족관계와 가정생활이 안정된 가운데 목표를 추구하려는 것으로 추측되며 가정내 목표를 달성하므로써 가족간의 욕구충족에 따른 만족도의 증대와 더불어 가정생활의 행복도가 증진된다고 볼 수 있겠다. 반면에, 스트레스수준이 높을수록 변화지향적으로 나타났다.이는 변화지향적 관리행동유형이 창의적이고 새로운 욕구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경향으로써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스트레서(Stressor)가 될 수 있으나 발달적인 측면에서 볼때 변화지향적인 관리행동도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스트레스의 하위영역별로 가정관리 행동유형과의 관계를 보면, 가족의 건강에 관한 스트레스수준이 높을수록 시간관리에 대한 가정관리 행동유형은 변화지향적으로 나타났다($r=.09$, $p<.05$). 이는 가족원의 사망이나 질병, 입원 등으로 인한 심리적충격, 불안, 부담감과 병간호로 인한 생활시간의 스트레스를 초래한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가족원의 건강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으로서 변화에 반응하고 융통성있는 시간활용을 추구함으로써 변화지향적으로 나타났으리라 생각된다. 가사노동의 스트레스수준이 높을수록 시간관리 행동유형은 변화지향적으로 나타났다($r=.10$, $p<.05$). 이는 생활수준향상에 따른 욕구수준의 증가로 가정내 표준의 상승과 가사노동의 정교화가 이뤄지고 있고(김혜경 1985), 가사노동영역중 가정관리 활동시간인 가족원의 보살핌, 관리 및 구매시간등이 증가하는 시간의 구조적변화가 (한경미, 1987) 가사노동 대체의 한계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주부는 더욱 시간제약을 지각할 것으로 예측된다. 가사노동에 대해서 시간제약으로 인한 스트레스수준이 높을수록 시간관리행동을 기준설정시에 융통적이고 창의적으로 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에 각 변인이 미치는 독립적 영향분석

〈연구문제 4〉인 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에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스트레스가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을 알아보기위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의 채택을 일원분산분석의 결과와 상관관계의 결과를 토대로 하였다(표 8).

종속변인인 가정관리 행동유형과 독립변인들과의 단순 상관관계를 보면, 연령이 많을수록 ($r=.12$, $p<.01$) 결혼지속년수가 많을수록 ($r=.10$, $p<.05$), 스트레스수준이 높을수록($r=.11$, $p<.05$)

표 8. 주요변인과 가정관리 행동유형간의 상관관계

	가정관리행동유형
연 령	.12**
학 력	.06
결혼지속년수	.10*
취 업 유 무	.06
자 녀 수	.01
사회경제적지위	.06
스 트 레 스	.11*

$p<.05$* $p<.01$**

표 9. 가정관리행동 유형에 관련된 영향변인의 독립적 영향

종속변인 / 독립변인	가정관리행동유형		
	비표준화된 회귀계수(b)	표준화된 회귀계수(β)	F값
연령	.17	.13	7.63**
학력	.04	.01	
결혼지속년수	.01	.01	
취업유무	−.47	−.03	
자녀수	−.41	−.06	
사회경제적지위	.19	.08	4.47*
스트레스	.05	.10	4.28*
회귀상수	39.162	F값 2.95**	
R^2	0.04		

$p<.05^*$ $p<.01^{**}$ Durbin-Wastson D=1.950

β : 표준화된 회귀계수(종속변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냄) b : 비표준화된 회귀계수

가정관리 행동유형은 상대적으로 변화지향적인 유형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중회귀분석의 7개독립변인이 가정관리 행동유형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표준화된 회귀계수(β)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9). 연구결과 회귀방정식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R^2의값이 4%로 낮은 수준이나 유의도를 검증하는 F 값은 $p<.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에는 연령(β=.13)과 스트레스수준(β=.10), 사회경제적지위(β=.08)가 독립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의 연령, 스트레스수준, 사회경제적지위의 세 변수는 가정관리 행동유형의 전체분산을 4%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인구학적 변인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던 결혼지속년수와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도시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을 분석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밝히며, 가정생활에서 겪게되는 주부의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가정관리 능력의 저하를 방지함과 동시에 가정관리 행동의 질적향상 및 가정생활의 행복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전체 스트레스수준의 평균은 49.17점(100점 환산시 37.25)으로 심각한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으며, 최저 16점에서 최고 99점까지 고른분포를 보였다. 가정문제, 가사노동문제, 건강문제 및 재정문제순으로 스트레스수준이 높았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중 연령과 자녀수, 사회경제적 지위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2) 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은 약간안정지향적인 행동유형을 나타내었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중 연령, 결혼지속년수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3) 가정관리 행동유형에 독립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연령, 스트레스수준, 사회경제적 지위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 및 제언을 내릴 수 있다.

첫째, 광주시 주부의 스트레스수준은 가정문제 및 가사노동문제가 가장 높았다. 가정생활에서 외형적으로는 남녀평등사상이 보편화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전통성을 고수하는 부분이 많아서 가정문제와 가사노동 수행시 성역할상 스트레스를 야기시키는 요인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주부의 연령이 적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류층이 스트레스수준이 높게 나타나 이들에 대한 계몽과 복지대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셋째, 주부들의 가정관리 행동유형은 전반적으로 안정지향적인 영향을 띠었다. 또한 사회인구

학적 변인이 중요한 영향요인임이 밝혀졌는데, 가정생활의 경험과 관련된 변인인 연령과 결혼지속년수, 가족자원과 관련된 주부의 학력과 사회경제적지위가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은 변화수용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가정관리 행동유형에 직접적인 영향력있는 변인은 연령과 스트레스수준, 사회경제적 지위임이 나타났는데, 가정관리자인 주부의 인적·물적자원인 위의 영향력있는 변인이 가정관리 행동유형에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스트레스는 주부에게 심리적인 부적요인으로서 가정관리 능력저하를 초래하여 가정관리 행동의 질적향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가족유지는 안정지향성에 기인하며 발달은 변화지향성을 강조하는데 이 두지향성은 모두 가정의 행복에 기여한다. 또한 필요한 안정성을 제공하고 창조적인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그 가정에 따라, 또는 상황에 따라 균형이 다양하게 이루어진다할지라도 전 가정생활주기를 통하여 번갈아 가며 나타나게 된다. 결론적으로 가정관리 행동은 가정영역을 유지하려는 목표지향적인 관리행동과 새로운 자원을 창의적으로 개발하려는 관리행동이 조화를 이룰때 가장 바람직한 가정관리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변화하는 환경에서 가정의 목표와 요구가 훌륭히 달성되려면 스트레스와 관계되더라도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좀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심리적 요인을 다루는 주부의 스트레스수준과 가정관리 행동유형을 측정하기 위한 표준화된 질문지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방법론적측면에서 미비한점이 많았다. 그러므로 가정관리 행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적절한 관리행동 유형의 측정도구와 우리나라의 가정생활에 맞는 스트레스문제점을 다룬 측정도구의 개발이 시급하다. 그리하여 본 연구보다 더 자원의 범위를 확대시킨 연구가 장차 이뤄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고정자(1983). 미혼남성의 가족의식에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

2) 권경희(1985). 한국도시주부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3) 김경아·이정우(1990). 기혼여성이 지각한 가정생활상의 Stress수준 및 관련변인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101-117.

4) 김영규(1980). 연령·성·사회계층별 일상생활상의 스트레스와 적응방법의 비교.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5) 김윤주(1977). 일반인과 정신과 환자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6) 김혜연·문숙재(1987). 생활양식 유형에 따른 가정관리 행동의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25(2).

7) 나동석(1980). 신경정신과에 입원한 여성 신경증적 장애환자의 결혼역동에 관한 임상적 연구. 중대 석사학위논문.

8) 상정기(1976). 가정관리능력과 학력의 상대적관계에 대한 분석적연구. 부산교대 논문집, 12(2), 117-134.

9) 서동인(1985). 취업주부의 결혼만족도와 관련변수 고찰.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0) 서창원(1983). 주부의 가사노동 만족도와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1) 송성자(1975).국제결혼에 있어서 부부갈등.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2) 심인숙(1981). 여성정신장애의 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13) 오명숙(1978). 결혼적응도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4) 유도진(1978). 한국공업화에 따른 가족구성원의 역할갈등. 사회문화논집 7.

15) 윤 진(1984). 노부모와 중년자녀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6) 이옥진(1982).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관련된 가족환경적 변인에 관한 일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7) 이광주(1988). 주부의 스트레스요인과 적응방법에 관한 연구. 효성여대 석사학위논문.

18) 이정우(1982). 가정환경적요인 가정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대논문집, 22, 167-197.

19) 이정우·오경희(1988). 가정경영에 대한 가치관이 가정관리행동 유형에 미치는 영향. 숙대논문집 (생활과학연구소 2).

20) 이정우·오경희(1988). 가정관리 행동유형과 관

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6(1).
21) 이정우 · 장병옥(1987). 기혼여성의 의사소통 유형과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아세아 여성연구, 26, 215-241.
22) 이효재(1973). 도시중류가정의 문제와 여성의 역할, 한국여성문제연구소 3.
23) 장명욱(1986). 가정관리학, 교문사.
24) 장병옥(1985). 도시주부의 스트레스 인지수준 및 적응방법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25) 정민자(1983). 부부가족의 가족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가족자원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6) 정충량 · 이효재(1970). 도시주부 생활에 관한 실태조사. 한국문화연구원논총 16.
27) 조영희(1986). 도시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8) 조혜정(1990). 가정관리행동과 가정관리 정보요구도 및 정보노출도와의 관계분석. 목포대 논문집 11(11).
29) 최윤희(1982). 도시주부의 가정관리능력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 석사학위논문.
30) 한경미(1987). 비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과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31) Baugher, S.L. & Martin, B.B.(1981). The decision-filled years of adolescence :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73, No. 3.
32) Beard, D.M.(1975). Morphostatic & Morphogenic planning behavior in families : Development of an measurement instrument : The ohio state University, Ph.D.
33) Beard, Doris & Firebaugh, F.M.(1978). Morphostatic & Morphogenic Planning behavior in families : Development of a measurement instrument :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6, No. 3.
34) Bernard, J. (1976). Stress and the family :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68, No. 5, 6-10.
35) Booth, A. (1977). Wife's employment and husband's Stress : A replication and Refutation :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39, No. 4.
36) Decon, R.E. & Firebaugh, F.M.(1975). Home management context and concept : Houghton Mufflin.
37) Decon, R.E. & Firebaugh, F.M.(1981).Family resource Management : principles and applications : Allyn and Bacon, Inc.
38) Dohrenwend, B.S.(1973). Live events as stressors : A methodological inquiry : *Journal of Health and Eocial Behavior* 14, 167-175.
39) Gore, S & Mangione, T.W.(1983). Social roles, sex roles and psychological distress : additive and interactive models of sex differences :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4, 300-312.
40) Gross, I.H., Crandall, E.W. & Knoll, M.M.(1980).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 4th. ed, Prentice. Hall, Inc.
41) Hamilton & McCubbin(1979). Intergrating coping behaviors in family stress theory :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37-244.
42) Hook, Nancy C. & Beatrice Paolucci (1970). The family as an Ecosystem : *Journal of Home Economics* 62(5). 315-318.
43) Hicks, M.W. & Platt, Marilgn(1970). Marital happiness and stability : A Review of the research in the sixties :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17. No. 4, 533-573.
44) Mcclelland, J.(1976). Stress and middle age :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68. No. 5.
45) McCubbin, H.I., et al.(1980). Family stress and coping :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2. No. 4.
46) Nelson, P.T. & Nelson, C.W.(1981). Personal and family stress management :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73, No. 3.
47) Nickell, P., Rice., A.S., Tucker, S.P.(1976). Management in family living : 5ed. john wiley & Sons.
48) Orden, S.R. & Bradburn, N.(1969). Working Wives and Marital Happiness ? : *Amercan Journal of Sociology*, vol. 74, No. 4.
49) Rosenfield, S.(1980). Sex differences in depression : Do Women always have higher rates ? :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 21.
50) Veit, C.T. & Weic, J.E. Jr.(1983).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distress and well-being in general populations,*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 권경희 1985에서 재인용.